

#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평균기온 10℃ 근접

### 평년에 비해 2℃ 가량 높아... 1월 7일엔 23℃ 기록 반짝 추위 찾아든 2월도 1월에 비해 2~4℃씩 올라

지난 겨울철 제주지역 평균기온이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년에 비해 2℃ 가량 높아 봄같은 겨울을 나타냈다.

1월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평균기온은 10.2℃로 평년보다 1.5℃, 1월은 9.2℃로 평년에 비해 2.9℃나 높았다. 2월 들어서도 평균기온은 10℃에 근접하면서 평년에 비해 2℃ 정도 높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7일 제주지역 기온이 23℃까지 치솟으며 기상 관측 이래 역대 가장 더운 1월로 기록됐다. 이전 최고 기록은 1950년 1월 17일 21.8℃였다.

2월 평균기온인 경우 중후반 반짝 추위가 찾아들면서 다소 기온이 낮았으나 하순절어들며 기온을 회복했다.

2월 제주시 지역 평균 기온은 9.1℃로 나타났으며 최고기온 21.8℃, 최저기온 6.1℃를 기록했다. 서귀포시 평균 기온은 9.7℃(최고기온은 18.6℃, 최저기온 6.2℃), 성산 8.4℃(최고기온 18.3℃, 최저기온 4.2℃), 고산 8.4℃(최고기온 20.1℃, 최저기온 5.9℃)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첫눈 관측일은 지난해

12월 31일로 나타났으며, 기온이 높아 눈보다는 비가 주로 내렸다.

눈이 적었던 원인은 우리나라 주변 기온이 평년보다 매우 높았고, 약한 시베리아 고기압으로 인해 서해상의 해기차(해수면과 대기의 온도차)에 의한 눈구름대 생성이 약했

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뜻한 겨울 날씨 탓에 생태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조령목’과 제주 용암 숲 꽃자왈에만 자생하는 ‘제주백서향’이 예년에 비해 한 달가량 일찍 꽃이 피는 한편 1월 10일에는 법정 보호종(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제주도롱뇽이 서귀포시 한남리 지역 습지에서 한 달 정도 일찍 겨울잠에서 깨어 산란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벚꽃 개화도 평년보다 3일, 지난해보다 5일 빠른 내달 20일 제주에서 처음 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폭으로 기온 상승이 관측되고 있다”며 “농업 등의 업종은 기후 변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행정차원에서 기상자료와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벌써 부화한 올챙이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1일 북방산개구리알에서 예년보다 일찍 부화한 올챙이들이 서귀포시 중산간 계곡의 개울물에서 포물포를 헤엄치고 있다.

###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사업 제주도교육청, 운영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함께 풀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사업 운영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선정 단계는 마을역량 강화는 물론 마을 이해 교육, 마을 연계 진로교육, 마을도서관, 지역 연계 예술 활동, 마을텃밭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심사위원 구성해 단체 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운영자로 선정된 단체에는 1곳당 2000만원 내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공모 기간은 오는 11일 오후 5시까지이며, 도교육청 정책기획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기획과(710-0184)로 문의할 수 있다. 김지은기자

# 오늘부터 긴급돌봄... 긴장 감도는 새 학기

### 도교육청, 개학 연기에 2~6일 유·초교 긴급 돌봄 하루 두 번 발열 확인... 학교선 개학 막까지 준비

오늘(2일)부터 제주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 돌봄이 운영된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의 추가 개학 연기가 없을 경우 오는 9일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교에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막까지 준비가 한창이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 돌봄을 운영한다. 개학 연기로 맞벌이 가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긴급 돌봄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 중에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

뤄진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1교실 당 10명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5~26일 이틀간 긴급 돌봄 신청을 접수했다. 그 결과 유치원 921명, 초등학교 1653명 등 모두 2574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치원생(전체 6446명)은 14.3%, 초등학교 1~3학년 2만337명)은 8.1%의 신청률을 보였다.

이는 당초 도교육청이 긴급 돌봄 신청 인원을 5000명 안팎으로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 수준이다. 제주에선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2일 이후로 추가 확진자

가 나오지 않았지만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 긴급 돌봄 신청률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불안이 여전한 만큼 도교육청은 돌봄교실 내에서 방역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해 손소독제와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비치하고 하루 두 번 발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학교마다 새 학기 준비도 분주하다. 도교육청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를 방문해 감염병전담관리조직 운영, 방역물품 비축, 외부인 출입 관리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을 파악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지은기자

# “101년 전 학생에게서 새 교육 길 본다”

### 이석문 교육감, 3·1절 기념사 “아이 존중받는 제주교육 실천”

이석문(사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1일 제101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101년 전 학생들에게서 새로운 교육 100년의 길을 본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3·1운동의 한 축은 학생들이었다. 101년 전 학생들은 삶의 주제로 태극기를 들었고 독립의 함성을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넓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올해는 만 18세 학생들이 ‘교육 입은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한다”며 “대상이 아닌 삶의 주



체로서 아이들이 미래를 향한 주도적인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충실히 펼쳐 나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 “101년 전 선열들이 사람을 중심에 놓고 국난을 이겨낸 것처럼, 코로나19의 어려움도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드는 희망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 “3월 9일 개학, 사전 준비 철저히 해야”

### 도의회 교육위, 교육청 대책본부 방문 현황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가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섰다.

제주도의회 교육위는 지난달 28일 제주도교육청 대책본부와 서귀포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책과 개학 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후속 조치 등을 점검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3월 9일 개학일에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19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발열 확인 장비를 확보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위한 학생 대상 교육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강시백 위원장은 “새 학년 준비는 물론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써 달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추가 지원

### 도, 정부지원 후 본인부담금액 20~40%까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보육시설 등의 휴원과 개학연기에 대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여성가족부가 지난 28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중 정부 지원 비중을 0~85%에서 40~90%까지 늘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20~4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사업이다. 서비스 요금은 시간당 9890원으로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년 720시간 이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위 소득 75% 이하 가정(가정)인 경우 본래 1483원(15% 수준)을 본인 부담금으로 부담했지만, 정부 부담금이 90%로 확대되고

추가로 제주도가 40%를 지원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시간당 594원만 내면 된다.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중위소득 150% 초과인 가정(라형)은 본인부담금의 40%(3956원)를 지원받고 추가로 제주자치도에서 20%를 지원 받음에 따라 기존 7912원에서 4748원만 내면 된다.

이는 오는 2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간 적용되며, 휴원·휴교가 3월 27일 이전 종료 시에는 특례 적용 또한 종료된다.

또 늘어나는 정부 지원 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생기는 가정이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고대모기자

**THE FIRST & THE BEST**

**사랑스러운 자녀의 예술교육을 위해 아직도 육지로 나가시나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담스러우시죠?**

**4월 1일 개강**  
**3월 중**  
**신입생 모집**

“ 꿈을 변화시키는, 예술가를 키우는 예술중점 대안학교 예주랑 ”

제주시 봉개동에 새롭게 시작되는 "예주랑" 예술 학교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럽 및 미국의 경험 많은 교수님들이 직접 제주에서 수업을 해주실 것입니다. 저희 예주랑이 자녀들의 예술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문의 : 010.9110.2205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847-10 예주랑  
블로그 : blog.naver.com/yejurangjeju